

기아 오토랜드 광주 스포티지 '수출 효자'

올 11월까지 국내 4만9198대 등 승용 부문 판매 5위 올라 광주 자동차 수출 전년비 16.5% 증가...하이브리드 '견인'

기아 오토랜드 광주에서 생산하는 대표적인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모델 '스포티지'가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큰 인기를 누리면서 광주지역 수출 효자 노릇까지 톡톡히 하고 있다.

19일 완성차업계에 따르면 기아의 스포티지는 올 1월부터 11월까지 국내에서 4만9198대 판매됐다.

이는 기아 쏘렌토(6만1509대), 현대차 그랜저(5만8113대), 기아 카니발(5만1735대), 현대차 아반떼(5만508대)에 이어 국내 승용 부문 5위에 해당하는 것이다.

11월 한 달만 놓고 봐도 스포티지는 5762대가 판매돼 카니발(7565대)과 쏘렌토(6656대)에 이어 아반떼(5700대)를 제치고 국내 판매량 3위에 이름을 올렸다.

스포티지의 인기는 국내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다. 기아의 2022년 11월 판매실적 자료를 보면 기아는 지난달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5만2200대, 해외 20만625대 등 전년 동기 대비 15.0% 증가한 25만2825대를 판매했다.

특히 차종별 실적에 따르면 스포티지는 3만9335대로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셀토스(2만7947대), 쏘렌토(1만9949대) 순이었다.

국내를 넘어 해외시장에서 '리브콜'을 받는 스포티지는 광주지역 수출실적 견인에도 큰 힘을 보태고 있다.

이날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11월 광주·전남 수출은 전년 대비 3.9% 감소한 49억9000만 달러다. 여기에 전국 평균 수출감소율은 14%를 기록 중이다.

하지만 광주의 수출은 오히려 전년 대비 6.3% 증가한 15억5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광주의 수출 주력 품목 중 하나인 냉장고를 비롯해 출전지 등의 수출 감소세에도, 자동차와 반도체 등이 견조한 증가세를 보이면서 광주 수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무역협회의 설명이다.

실제 지난달 광주의 자동차 수출은 전년 대비 16.5%나 증가하며 수출액 5억2000만 달러를 달성했다. 광주 전체 수출액의 33.5%를 자동차가 차지한 셈이다.

무엇보다 수출되는 자동차 중에서도 SUV 모델, 그 중에서도 올해 처음 수출이 시작된 하이브리드 차 수출이 꾸준히 이뤄지며 광주지역 수출상승세를 이끌어나가고 있다. 광주에서 현재 수출하고 있는 하이브리드 차량은 스포티지가 유일하다.

이처럼 기아 오토랜드 광주에서 생산돼 지역의 주력 수출 품목으로 자리매김한 스포티지는 해외에서도 호평을 얻으며 입지를 다지고 있다.

스포티지는 최근 미국의 자동차 평가매체인 켈리블루북(Kelly Blue Book)이 선정하는 '2023 베스트 바이 어워드'(Best Buy Awards)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부분을 수상했다. 운전자를 배려하는 편의 사양과 우수한 가성비 등 상품경쟁력이 배경이 됐다.

이밖에 도 스페인과 그리스에서 각각 '올해의 차'



기아 오토랜드 광주에서 생산되는 스포티지가 해외에서도 극찬을 받으며 지역 수출 효자 품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에 오르며 경쟁이 치열한 유럽 중형 SUV 시장에서 탁월한 상품성도 인정받고 있다.

스포티지는 스페인 유력 언론사 ABC가 주관하는 '2023 스페인 올해의 차'(ABC Car of the Year 2023)에서 최종 25.13%를 득표했다. 르노 아스트랄(15.30%), 쿠파르 본(8.59%), 푸조 308(7.12%), 오펜 아스트라(6.20%), 알파-로메오 토날레(6.14%) 등을 제치고 스페인 올해의 차에 선정됐다. 기아가 스페인 올해의 차를 수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리스 올해의 차 선정위원회도 최근 스포티지를 '2023 그리스 올해의 차'(Car of the Year 2023

in Greece)로 선정했다. 스포티지는 총점 399점을 획득해 경쟁자들을 큰 점수차로 누르고 1위를 차지했다.

앞서 스포티지는 이달 초 스코틀랜드 올해의 차에서 올해의 패밀리 SUV와 올해의 하이브리드카 등 2관왕을 차지하는 등 유럽에서 호평 세례를 이어가고 있다.

독일 자동차 전문지 '아우토 자이퉁(Auto Zeitung)'은 최근호에 게재한 콤팩트 하이브리드 SUV 비교평가에서 토요타 RAV4, 닛산 캐시카이, 마즈다 CX-4 등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드림카 아트 콘테스트

토요타 내년 1월 20일까지

토요타코리아는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함께 내년 1월20일까지 '제16회 토요타 드림카 아트 콘테스트'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16회째를 맞이한 '토요타 드림카 아트 콘테스트'는 '꿈의 자동차'(Your Dream Car)를 주제로 토요타자동차 본사에서 매년 전세계 어린이 및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열리는 미술 대회다.

지난 14회 글로벌 본선에서는 한국 어린이 최초로 이제을 어린이가 대상(오명 정화 자동차)을 수상, 제15회 글로벌 본선에서는 유재하 학생이 은상(윤지하는 미술)을 수상하는 등 한국 어린이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

참가대상은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만 15세 이하, 국내에 거주하는 어린이 및 청소년은 누구나 가능하며 ▲만 8세 미만 ▲만 8세 이상~11세 이하 ▲만 12세 이상~15세 이하의 세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출품작들은 23년 2월 중으로 심사를 거쳐 국내 콘테스트 수상작으로 총 59작품을 선정하며 이중 각 부문별 금상, 은상, 동상 9개 작품의 수상자에게는 상장, 상패 및 부상 그리고 글로벌 본선인 월드 콘테스트에 진출 자격이 주어진다.

강대한 토요타코리아 상무는 "미래를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어린이들이 자유로운 발상으로 '꿈의 자동차'를 그리는 대회"라며 "전 세계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드림카 아트 콘테스트에 한국 어린이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오늘 영상회의는 버스에서 합니다

현대차 국내 첫 양산형 '유니버스 모바일 오피스' 출시 그룹 협업 공간·회의 테이블 등 개인·소규모 회의 최적

사무실이 움직인다. 현대자동차는 19일 국내 최초 양산형 이동식 사무공간 '유니버스 모바일 오피스' (사진)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유니버스 모바일 오피스는 현대차의 프리미엄 고속버스 '유니버스'를 사무공간으로 재탄생시킨 차량이다. 승객들은 이동과 함께 다양한 업무 수행은 물론 차별화된 휴식 경험을 누릴 수 있다.

유니버스 모바일 오피스 내부는 곡면과 직선의 조화로 개방감을 극대화하고 줄이 없는 코드리스 블라인드, 밝은 색상의 강화 마루 등 고급스러우면서 실용적인 디자인 요소를 더해 품격을 높였다.

특히 차량 안에서 개인 업무 및 소그룹 회의를 할 수 있도록 최적의 사양을 구현한 것이 유니버

스 모바일 오피스만의 특징이다. 개인업무 공간과 그룹 협업 공간, 수납공간 등으로 구성되며, 각 공간의 용도에 맞춰 다양한 기능을 완비했다.

먼저 개인 업무 공간에는 ▲프리미엄 리클라이닝 시트 ▲개별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무선 충전패드 ▲업무용 사이드 테이블 ▲개인 수납공간 등을 탑재해 이동 중에도 편안하게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그룹 협업 공간은 ▲영상회의 시스템 ▲접이식 회의 테이블 ▲소파 시트 등을 배치해 협업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수납공간은 고객의 니즈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맞춤형으로도 제작된다.

유니버스 모바일 오피스는 ▲기분향 10인승을 비롯해 ▲13인승 다인원 승차형 ▲그룹 협업 공간을 전면으로 이동시킨 13인승 업무 공간 확

대형 ▲시트 2개 추가한 13인승 이동 및 협업형 등 시트 구성을 차별화해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유니버스 모바일 오피스 가격은 ▲10인승 5억8532만원 ▲13인승 다인원 승차형 5억5685만원 ▲13인승 업무 공간 확대형 5억6430만원 ▲13인승 이동 및 협업형 5억3060만원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닌 새로운 미래형 공간을 창출하는 모빌리티 개념을 반영해 유니버스 모바일 오피스를 개발했다"며 "넓은 공간을 갖춘 고속버스의 장점을 이용해 고객 맞춤형 모빌리티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버스 사업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대차는 2022 부산국제모터쇼에서 유니버스 모바일 오피스를 전시해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또 전북 현대 모터스 축구팀에 2021년 K리그 우승 및 사상 첫 5연패 달성을 기념해 '유니버스 작전지휘차'를 전달한 바 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기아, 월드컵 12번째 선수 활약

한 달 간 버스 70대 등 297대 운행...EV9 등 홍보

기아는 지난 한 달간 세계 축구팬들이 열광한 '2022 FIFA 월드컵™' 공식 파트너사로 월드컵 기간 동안 차량과 버스 등 이동수단을 지원하며 대회의 성공적인 운영에 기여했다고 19일 밝혔다.

2022 월드컵 기간 총 297대의 기아 승용 차량과 70대의 기아 로고를 입힌 버스가 대회 운영에 동원됐으며, 특히 이 중 80대는 친환경 차량이었다. 세부적으로는 EV6 GT-라인 30대, 쏘렌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30대, 니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20대다.

기아가 제공한 대회 공식 차량은 각국 대표 선수들, 대회 운영진, 언론 및 방송인들의 원활한 이동과 물류 운송에 사용됐다.

EV6 GT-라인 차량은 공식적으로 월드컵 역사상 대회 운영에 사용된 기아의 첫 번째 전기차 모델이 됐다. EV6 GT-라인의 월드컵 지원 활동은 아직 친환경 차량의 사용이 대중적이지 않은 중동에서 전 세계적인 화두인 '지속 가능성'을 실현한 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기아와 FIFA는 이를 기념해 다큐멘터리 콘텐츠 '로드 투 인스퍼레이션'을 제작했다. 해당 콘텐츠는 FIFA의 자체 OTT 플랫폼인 'FIFA+'를 통해 공개됐으며, 해외 유명 스포츠 해설가 애덤 헛트와 전 국가대표 선수 미카엘 실베스트르(프랑스), 나이젤 더 용(네덜란드)이 함께 출연했다. 이들은 직접 EV6 GT-라인을 타고 이번 월드컵 개최국인 카타르의 음식과 문화를 체험하며 월드컵 경기장을 둘러보았다. 기아는 알투마마, 알바이트, 칼리파 인터내셔널



월드컵 경기관람을 위해 카타르를 찾은 방문객들이 'FIFA 팬 페스티벌' 기아 브랜드 부스에 전시된 '더 기아 콘셉트 EV9'을 살펴보고 있다.

등 세 곳의 월드컵 경기장에 설치한 브랜드 액티베이션 존에서 축구 팬들을 위해 다양한 축구 관련 게임 등 이벤트를 운영하고 EV6 GT, 텔루라이드, K8, K5, 쏘렌토, 스포티지 등 총 6대의 차량을 전시했다.

기아는 월드컵 기간 동안 카타르 도하 알 비다 파크에서 FIFA가 운영하는 메인 팬 존 'FIFA 팬 페스티벌'에서 브랜드 부스에 '더 기아 콘셉트 EV9'을 전시, 4만여명의 관람객이 방문했다.

기아는 이번 2022 월드컵에 직접 선정한 39개국 총 250명의 게스트도 초청했고, 20여개국에서 총 64명의 축구 유망주들을 선발해 '오피셜 매치볼 캐리어'(OMCB) 자격으로 카타르에 초청했다. OMCB는 경기 시작 직전 공인구를 들고 심판진과 선수들을 경기장으로 인도하는 역할이다.

한편 기아는 OMBC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국 축구 유망주 어린이 5인의 선발부터 현장에서의 OMCB 역할 수행까지 과정을 담은 콘텐츠 시리즈를 축구 전문 유튜브 채널 '숏포터브'와 함께 제작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제네시스 '2023 GV60' 페이스 커넥트 기본 적용

연식 변경 모델 본격 판매

제네시스 브랜드가 연식 변경 모델 '2023 GV60'을 출시하고 본격적인 판매에 들어갔다.

19일 제네시스에 따르면 이번엔 출시한 2023 GV60은 고객 만족도가 높은 고급 사양을 기본화하고 새로운 사양을 추가해 상품성을 향상했다.

2023 GV60은 사람과 차량을 교감할 수 있게 해주는 혁신 기술인 페이스 커넥트를 전제 트림에 기본으로 적용했다.

페이스 커넥트는 차량이 운전자 얼굴을 인식해 키 없이도 차량 도어를 잠금 및 해제할 수 있는 기능으로 도어 핸들 터치 후 차량 B필러에 위치한 카메라에 얼굴을 인식시켜 사용할 수 있다.

또 제네시스는 2023 GV60에 배터리 전원을 이

용해 외부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실내 V2L과 배터리 관리 시스템(BMU) 무선(OTA) 업데이트 기능을 기본화해 고객 편의성을 높였다.

무드램프와 연계된 풋램프를 통해 자연스럽게 아늑한 공간을 연출할 것도 이번 모델의 특징이다.

퍼포먼스 모델에는 엔진과 변속기가 장착된 듯한 느낌을 전달하는 가상 변속 기능 VGS(Virtual Gear Shift)가 기본으로 들어갔다.

VGS는 모터에서 발생하는 구동력을 기반으로 가상의 변속감, 변속 사운드, rpm 변화 등을 발생시켜 운전의 몰입감을 높이고 즐거움을 제공한다.

이밖에 후륜 캘리퍼에 스타일링 커버를 적용해 한층 더 스포티한 이미지를 연출했다.

2023 GV60의 판매 가격은 세제 혜택 후 ▲스탠다드 후륜 모델 6493만원 ▲스탠다드 사륜 모델 6836만원 ▲퍼포먼스 모델 7406만원이다.

제네시스 관계자는 "이번 2023 GV60은 더 많은 고객들이 차량과 교감할 수 있는 혁신 기술을 경험할 수 있게 상품성을 강화했다"면서 "앞으로도 럭셔리 전기차 GV60을 통해 차별화된 감성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네시스 GV60은 지난 10월 미국 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IIHS)가 발표한 충돌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톱 세이프티 픽 플러스(TSP+)를 획득했으며, 9월 유럽 신차 안전성 평가 프로그램인 유로 NCAP에서 최고 등급인 별 다섯 개를 받아 뛰어난 안전성을 입증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현대차 '베뉴' 3000대 리비아 장애인에 제공

리비아 사회복지기관과 공급 계약

현대자동차는 최근 리비아 사회복지부 산하 기관인 사회연대기금펀드투자청(General authority for social solidarity Fund)과 장애인용 차량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현대차는 이번 계약을 통해 2023년 상반기까지 '베뉴' 3000대를 리비아 내전 피해 장애인들을 위해 공급한다.

사회연대기금펀드투자청은 리비아 내전으로 고통받는 사회 취약계층과 장애인들의 복지를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 관리 기관으로, 내전 피해 장애인

을 위한 차량 구입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해 차량 구입 금액의 50%를 지원해준다.

장애인용으로 공급되는 차량에는 ▲하지 장애가 있는 경우 다리 대신 손으로 가속 페달이나 브레이크를 조작하는 핸드 컨트롤러 ▲한 손으로 운전대를 조작해야 하는 운전자를 위한 핸들 선회장치 등이 부착된다.

임행중 현대차 아중동권역본부장은 "리비아 정부와 이어가고 있는 파트너십을 통해 장애 유무와 상관없이 누구나 이동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